

제9기 대학평의원회 제9회 회의록

- 일 시 : 2024. 4. 17.(수) 10:00~11:00
- 장 소 : 대학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이재운, 김병기, 이대희, 최형운, 이재설, 김지호, 전봉권, 김정수
- 불참자 : 최도진

※ 안건

-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 보고 사항

-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 경과사항

(전봉권 의원 기도)

의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위원 정수 12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 되었습니다.

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원회 제9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전차 회의록 보고)

의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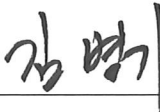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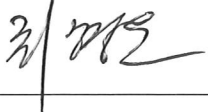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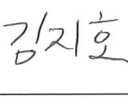
의장: 오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입니다. 먼저 재무지원실장께서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재무지원실장: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자료 상세 설명)

의장: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처장: 2024학년도 정원내 신입생 등록 현황은 93.95%입니다. 미등록에 대한 수입

간서명	김병기		최형운		김지호	
-----	-----	---	-----	--	-----	---

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0~3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의원7: 결산 자료 설명 감사합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총괄표에서 비율(%)이 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이 기재 되어야 총괄표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물품 가운데 컴퓨터, 실습 기자재 폐기시 기준이 연한입니까? 상태입니까?

재무지원실장: 상태와 연한을 같이 확인합니다.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7: 국립대학들도 활용 기간이 그보다 짧은데 10년이면 정말 오래 쓰네요. 알뜰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니 올해에 외국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수치로 확인하니 감소 폭이 굉장히 크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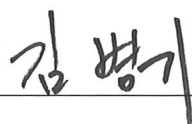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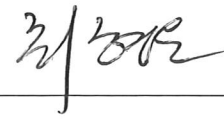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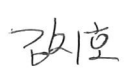
기획처장: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비자제한 대학 제한사항에 따라 유학생을 못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제교류원에서 비자제한 대학을 벗어나려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 중입니다. 유학생을 받을 수 없으니 교환학생 등 다른 방법으로 모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행 중입니다. 국제교류원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에 비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받더라도 바로 재정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3~4년 정도 연차가 쌓이면 외국인 유학생 수 및 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7: 전북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천명 단위인데 우리 대학은 백명 단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처장: 국제교류원이 계획은 수립하였으며 이에 지금 시행 중입니다.

위원5: 2023회계연도 학교의 총 수지차익이 49억원 이익으로 되어있는데, 3페이지 등록금 수입이 50억 감소하였습니다.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9억 이익이 발생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전반적으로 국고 사업의 수익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50억 적자임에도 국고(혁신지원사업)에서 A등급을 받아 추가적인 인센티브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을 작성할 때 학교의 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여러부서의 협조를 구해 지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지출 절감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올해 2023학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재정진단 평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안정적인 통과를 예상합니다.

간서명	김병기		최형운		김지호	
-----	-----	---	-----	--	-----	---

위원5: 혁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25%까지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어, 등록금회계 지출 분인 인건비를 국고 사업에서 많이 보존해 주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80억 이상을 국고 사업에서 대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등록금회계 이월 자금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처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4년도가 문제인데 등록 인원이 감소하여 30억 정도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처장: 국고에서 학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 하겠습니다.

의장: 우리 대학 자체 수입원이 약해지니 국고 사업이 예산에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국고 사업이 2024년에도 연속되는 사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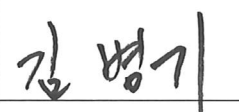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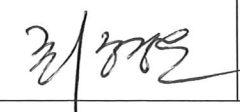
기획처장: 예 대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예산 및 인센티브 금액이 결정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꾸준하며 예측이 가능한 수입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고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은 맞지만 연차평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보면 동일한 금액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연속 사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만큼 국고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긴 하나 이들이 연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자체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처장: 신입생 충원을 100%가 자체 수입원의 주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입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과별로 재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컬 선정 여부가 학부모들의 선택지에 영향을 끼칠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학과별 재학생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간서명	김병기		최형운		김지호	김지호
-----	-----	---	-----	--	-----	-----

재정지원금 금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과별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학과가 융성해야 합니다. 학과 교수님이 열의가 생겨야 그 영향력이 학생들에게도 갑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고양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전원: 동의합니다.

의원4: 재청합니다.

안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자문」 → 원안대로 의결

보고사항: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 경과」

의장: 다음 보고 사항인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 경과」입니다. 기획처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처장: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 경과 사항 설명)

의장: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5: 16차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원 인원 부족에 따른 추가감원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는 충원이 잘되는 학과 정원을 감원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학과 사례가 있었듯 기획처에서는 일괄적 감원이 아닌 충원이 잘되는 학과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감원은 룰(Rule) 기반이며 경쟁력이 저조한 학과를 주로 감원했습니다. 16차 회의에 따른 정원 감원방안은 반발이 있었으나 경쟁력 없는 학과는 이미 감원을 했는데 추가 감원을 한다면 학과폐지 수준으로 정원이 감소하기에 학부학사단위 구조개편위원회 심의하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의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번 구조개편은 학과별 정원이동 정도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하고 정원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조정을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입학정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

간서명	김병기	김병기	최형운	최형운	김지호	김지호
-----	-----	-----	-----	-----	-----	-----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100% 공감합니다. 기획처에서는 단과대학 수 자체를 11개를 3개로 줄이는 등 다양한 안을 제안했었으나 학부학사단위구조개편회의와 내부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2: 구조개편 관련해 교수사회에선 소통의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개편위원회와 일반 학과 교수들간의 소통의 창구가 여러번 거치다 보니 듣는 정보도 한정적이게 되며 이에 따라 학과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서명	김병기	김병기	최형운	최형운	김지호	김지호
-----	-----	-----	-----	-----	-----	-----

2024. 4. 17.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 재 운	(인) 
의 원	이 대 희	(인) 
의 원	김 병 기	(인) 
의 원	이 재 설	(인) 
의 원	최 형 운	(인) 
의 원	김 지 호	(인) 김지호
의 원	최 도 진	(인)
의 원	전 봉 권	(인) 
의 원	김 정 수	(인) 